

571개 중앙사무 지방 이양...지방권한 강화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연내 제정 속도 지방항만 개발·관리...횡단보도 설치 권한 등

중앙 정부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이양 일괄 이양을 위한 법률 등 66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담은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 이양을 위해 개

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앞서 지난 2004년 당시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문제 등으로 국회 접수가 어려워 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다 올해 5월18일 여야가 지방이양

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안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됐지만 53개 사무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571개 사무가 이양대상으로 확정됐다. 지방항만 개발·관리 권한과 지역 내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권한 등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

비와 자료 이관·정보 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시행유예기간 1년을 둘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을 중심이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량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과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불탄 "북미정상, 내년 초 다시 만날 것"

美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라디오 방송인 '에코 모스크바'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새해 1월 1일 이후에(probably after the first of the year)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북미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을 공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네바다 주 유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잘 될 것이다. 서두르지 말라"고 언급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슈퍼 매파'로 불리는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 아이디어를 논의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과의 직접 협상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며 "대통령은 지난 여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위원장)과 만난다는 전례가 없는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군사 합의서' 비준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법제처 "국회 동의 불필요" 해석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가 청와대가 밝혔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 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 전시 관람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하기 위한 비준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시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북정상회담 관련 전시물을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하다"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국회가 비준 동의를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회신했다.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

고,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와 대통령 비준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이들 두 합의서의 대통령 비준이 온당한 것이냐 하는 것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비준과 관련,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시간을 두자"

남측, 남북 국회회담 실무회담 제안에 북 회신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위해 신속히 실무회담을 열자는 남측 제안에 북측이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 19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이르면 시일 안에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자고 북측에 제의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북 측이 실무회담을 열자는 제안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남북 간에 여러 변수가 있으니 조금 시간을 두고 열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남북국회회담 개최

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다음달 평양이나 서울에서 행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의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문 의장은 지난달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회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북측에 보냈고, 이달 1일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최대북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로 동의한다는 답신이 왔다. 11월로 생각하고 있고, 인원은 30명 정도 규모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시간이 없다

평양예술단 10월 서울공연 불투명...속소·경호 준비 촉박

남북이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예술단의 10월 서울공연'이 계획했던 일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10월 중 북한 예술단의 서울공연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직 10월이 안 지나갔는데 (시일이 촉박하다

는)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위해선 공연장과 숙소 마련은 물론 북측 인원에 대한 경호와 관객 선정 등 필요한 준비가 적지 않아 10월 내에 성사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내 아이의 미래를 바꿀 교육 글로링크 에듀센터

글로벌 에듀센터

순천 최대규모의 교육시설과 함께하실 **사업자 분들을 초청 합니다!!**

글로벌 에듀센터는 국제학교 개념으로 설립되는 대형 융복합 학원 교육시설입니다.

문의 : 02-502-8898 / 서울본사

파격가 임대!! ▶ 권리금 없이 시세로 임대 100%전세도 환영

(전세가능)

1층 입점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문구점, 악곡, 편의점, 안경점 등
2층, 3층 Kids Cafe, 영어도서관, 스피치학원, 입사상담, 심리상담(치료), 유학컨설팅, 과학, 레고, 로봇 등

성심부동산 010-6665-7355 대표 김중호

풍수 사주 >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개강 (초급 및 중급)

- 일 시 : 2018. 10. 30(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 시 : 2018. 10. 23(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재단은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I.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 ◆지원 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 중·고·대학 재학중인 학생
 - 2017년 10. 1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함
 - 영광군민 또는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주, 개인상황 등 고려
- ◆선발 인원 : 00명

II. 선발 방법 및 구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금쓰기 작품 1점 (작사, 수필, 생활문(장학생이 선발된다면) 등 형식, 내용에 구애 받지 않고 제출)
- 구비서류 양식은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ihmygg 참고

III. 선발 일정

- 서류접수 : 2018년 11월 1일(목) ~ 11월 20일(화) 17:00까지
- 최종 확정 안내 : 2018년 12월 초순경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중서 수여식 : 2018. 12. 재광영광군향우회 송년회 날 (12월말 예정)

◆신청 방법

- 우편 · 방문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61903) 광주광역시 서구 유포로 100 (동천동 헤천빌딩 7층)
- 전화 : (062)522-8422 사무국장 임재강 : 010-8667-6143

IV.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재광영광군향우회 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의 사무국으로 제출